

# 중국 가스보일러시장 현황 및 수출전망

가진가

대우전자(주) G/B개발팀  
정 현 백 선임연구원

## 1. 개요

12억 이상의 인구를 갖고 있는 중국은 어느 분야를 망라하고 진정 매력적이고 호감가는 시장이 아닐 수 없다.

일찍이 수정자본주의의 도입과 함께 정치와 경제를 완전히 분리운영하여, 사회주의국가 중에서 유일하게 고속성장을 하고 있어 반드시 쟁취해야만 하는 시장으로 각광받고 있다.

실제로 중국 대도시의 대부분은 하루가 다르게 변화하고 있다.

길거리에 쏟아져 나오는 수많은 고급외제차들, 백화점마다 가득찬 상품들, 어른아이 할 것 없이 유행처럼 구입하는 핸드폰, 외국브랜드 식당에 몰려드는 수많은 인파들, 그리고 전 국토가 마치 건설현장같이 하루가 다르게 건물들이 올라가고 있으며, 지역과 지역을 연결하는 고속도로공사 등 이제 중국은 더 이상 어제의 중국이 아니다.

그러나 고속성장에 따르는 필연적인 부산물로 점점 심각해지는 환경공해문제는 자국뿐만 아니라 인근국가 및 세계적인 문제로 떠오르고 있으며 상대적으로 낙후되어 있는 난방 및 온수문화에 대한 주민들의 불만과 욕구는 나날이 커지고 있다.

이러한 여러문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가스보일러사업의 참여는 오히려 때늦은 감이 있을 정도이며 중국정부의 정책에 발맞추어 기존의 타제품에 비해 엄청난 잠재수요 확보와 지역주민의 민원해결, 생활수준 향상이라는 명분을 이미 갖춘 매력적인 사업이라 아니할 수 없다.

## 2. 중국의 건축과 난방현황

중국의 난방방식은 사회주의국가에서는 어느 곳이나 마찬가지로 집단중앙공급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주 사용가스는 석탄가스이며 난방공급지역은 황하강을 기점으로 이남지방은 전혀 난방공급이 이뤄지지 않고 있으며 황하이북지역에만 1년중 5개월(11~3월)만 제한공급을 하고 있다.

이러한 열악한 난방 공급은 필연적으로 많은 부작용을 야기시켜 왔다.

겨울철 난방부족에 따른 불편을 해소하고자 일명 '도둑전기' 사용은 전세대가 보편화되어 있어 이에 따른 국가적 에너지 추가부담이 이미 상당부분에 이르렀고 일부세대는 난방에 따르는 가스사용 비용을 제대로 납부하지 않아 가스공급에 차질을 빚고 있다.

실제로 하얼빈의 경우 가스사용 납부실적이 50%도 안돼 일부지역은 가스공급이 중단되어 주민들과 심각한 마찰을 겪기도 했다.

또한 주사용가스인 석탄가스는 발열량이 낮고(2,500~4,000kcal), 가스의 질이 떨어져 연소후 발생하는 공해물질이 극심해 정부에서는 사용 가스를 청정연료로 바꾸는 조치를 심각하게 고려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소득과 생활수준의 향상에 따른 지역주민의 요구와 환경오염으로 인한 국제적 압력으로 중국 당국은 현재 일부지역에서 난방공급방식을 중앙난방 공급방식에서 개별난방 공급방식으로 전환하고 있으며 천연가스를 주연료로 사용하기 위한 가스 배관공사가 적극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현재 러시아에서 시작된 공사가 하얼빈→심양→장춘에 거쳐 진행중에 있으며 위구르 자치주에서는 서안→북경→천진으로 향하는 대단위 가스 배관공사가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지역별 유전개발공사가 활발히 진행중에

있으며 특히 산동성역 내의 청도와 제남시 등은 LPG저장탱크공사가 상당부분 완료되어 약 10만 가구의 수요를 확보하고 있어 가스보일러 시장으로 급부상, 이미 치열한 판매전에 돌입하고 있다.

**중국 가스보일러 시장은 기존의 타제품에 비해 잠재 수요가 풍부하고 지역주민의 생활수준 향상 등의 명분을 갖춘 매력적인 시장이라 할 수 있다.**

또한 사용자 부담원칙으로 인해 지역별 난방공급 제한규정도 철폐될 예정으로 관서지방(상해 이남)에서 도 경제적 부를 바탕으로 한 시장수요는 결코 적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현재 가스 배관공사 및 LPG저장탱크 구축이라는 기본적인 인프라시설이 완료되면 중국의 가스보일러시장은 대단히 활성화되리라 보여진다.

또한 표에 나타난 것처럼 사용가스의 연료비용도 우리나라와 달리 대단히 저렴해 기본적인 가스보일러시장은 엄청난 확대 가능성을 갖고 있다 할 수 있다.

### 3. 가스보일러 시장현황

일부지역(하얼빈, 청도, 제남)을 대상으로 가스보일러시장이 활성화되면서 서서히 각나라 가스보일러 메이커가 시장쟁탈을 위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유럽 지역의 대표적인 가스보일러 메이커인 Vaillant, Junkers, 소니에 듀발 등이 시장 참여를 하고 있으며 국내의 린나이, 경동, 귀뚜라미, 신광 등이 대우와 함께 시장확보를 위해 분주히 움직



사용가스별 열량 단가 비교표

구분	LNG	LPG	석탄가스	경유
열량/가격	10,000kcal /1.9元	10,000kcal /2.27元	10,000kcal /2.1元	10,000kcal /2.6元

이고 있다.

그러나 벌써부터 일부지역에서는 당장의 이익에 영합하여 미래의 거대한 가스보일러시장에 찬물을 끼얹는 파렴치한 행위를 벌이고 있다.

지난해말 국내의 예기치 않은 IMF한파로 인하여 일부 부도난 기름보일러 전문업체에서 흘러나온 기름보일러 재고품이 정확한 사양변경없이 싼 가격으로 들어와 저가로 거래되고 장기보관에 따른 제품불량, 부정확한 설치, 사후관리부재 등으로 인해 초기형성되는 보일러시장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으며 어렵게 구입한 소비자들에게는 한국제품에 대한 이미지를 극도로 악화시키고 있다.

또한 향후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 국제적 분쟁까지 초래하지 않을까 염려된다.

물론 한국산 가스보일러의 향후 판매에도 나쁜 영향을 미칠 것은 명확한 사실이다. 중국의 가스보일러시장은 유럽 일부메이커와 한국만이 제조 및 판매를 하고 있으며, 상대적으로 치열한 경쟁을 해왔던 일본이 가스보일러시장에 참여하고 있지 않아 현재까지는 상당한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다고 판단된다.

또한 유럽제품은 기본적으로 기계식 대형보일러로써 원가경쟁력이 국내제품에 비해 상당히 떨어져 결국 중국시장은 한국내 메이커의 각축전이 될 것 같다.

현재 발빠른 일부 중국메이커에서는 한국내의 우수가스보일러업체와 합자생산 및 현지판매를 추진하고 있으며 대우전자에서도 이미 여러업체로부터 이와 유사한 제의를 받아왔으나 아직까지는 구체적인 검토를 하고 있지 않다.



이러한 중국업체의 움직임은 향후 중국가스보일러 시장활성화에 대비한 중국업체의 기반구축을 위한 선행투자로 보인다.

#### 4. 향후 전망

현재 중국의 가스산업은 아직 미미한 단계에 있고 제반법규나 사고에 대한 보험약관 또는 PL 등에 대한 관련법이 아직 정비되지 않은 상태이다.

다만 중국시장에 수출품으로써 진입하기 위해서는 '97. 10월부터 규격취득(CCIB:질량허가증)을 해야만 한다.

또한 취득 후에도 각 성별 및 시별로 별도의 자료나 추가규격을 취득하여야 영업을 가능하도록 행정조치가 이루어져 또 다른 무역장벽이 형성되고 있다.

아직까지는 중국 전지역에 통일된 제반법규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현재는 광범위한 지역을 대상으로 영업을 하기 위해 초기투자비용 및 일정이 상당기간 소요될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중국인 특유의 만만디 기질과 공무원의 시간끌기에는 이미 다른 업종에서도 여러번 곤경을 겪은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러므로 가능성 있는 한 두지역을 대상으로 집중적 영업을 시도하면 오히려 향후 시장확대에 더 좋은 결과가 나타날 수 있을 것이다.

이제 중국은 더 이상 동토의 땅이 아니며 지구상 어느 국가보다도 더 치열한 황금시장으로 완전히 탈바꿈하고 있다.

특히 도입기에 들어선 가스보일러시장은 기업과 정부와 협회가 하나가 되어 기업은 경쟁력있는 제품을, 정부는 관련 제반법규를 한국업체에 유리하게, 그리고 협회는 수출관련정보 및 시장현황을 제공하여 체계적이고 치밀하게 시장접근을 한다면 그 어떤 제품보다도 경쟁력을 확보한 수출전략상품으로써 국가경제에 이바지를 할 수 있을 것이다.

그간 국내에서의 치열한 품질경쟁, 원가경쟁을 통해서 얻어진 우리 제품의 막강한 경쟁력을 토대로 중국의 난방기기시장을 우리나라 보일러업체가 앞장서 주도해 나가야 하겠다.